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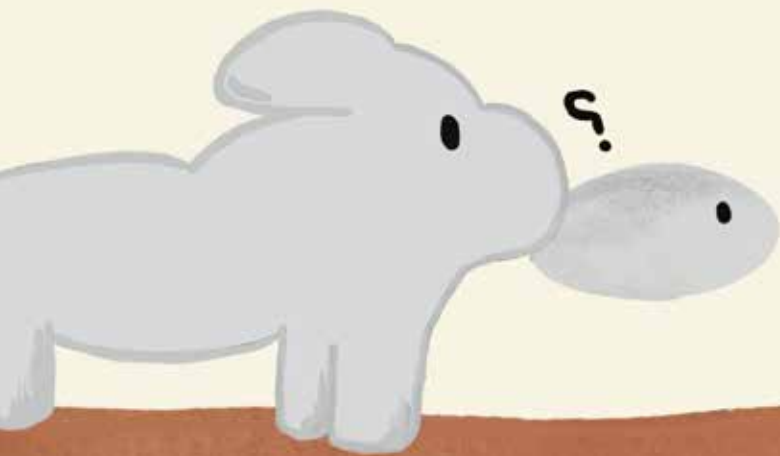
나  
의  
비  
전  
스  
토  
리  
편

# 나의비전스토리 1편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어!

작가: 김가희, 김병우, 김보미, 김태현, 박소현  
우혜선, 이미아, 이미영, 이태홍, 장은지

세  
상  
에  
쓸  
모  
없  
는  
건  
없  
어!

<본 작품은 포스코 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나의비전스토리 1편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어!

## 나의비전스토리, 소중한 꿈에 관련한 기억을 엮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신을 발견하고 꿈을 찾는 시기가 아닐까요?

사회에 나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고유한 정체성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비전스토리는 나 자신과 꿈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펼쳐질 길에서 꽃, 나무, 바람, 풀, 나비, 벌, 열매, 향수, 책, 친구들과

각자 소중한 세 가지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 . ? “” “!”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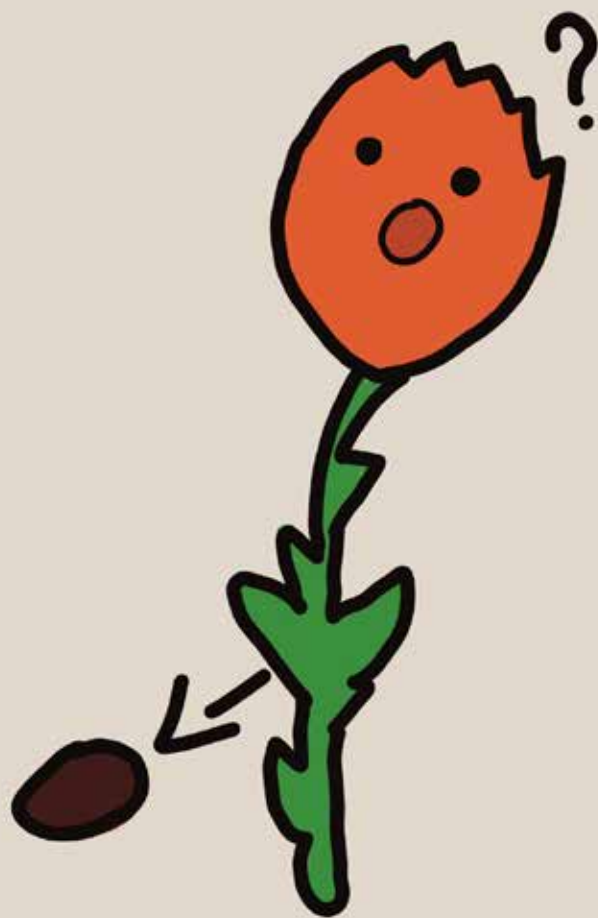
다채로운 감성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변신하고 서로 서로 “너만 괜찮다면 다 괜찮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웅이 되어주는 매일을

낡은 노트북에 기록해나가는 보물과 같은 이야기들을 1편, 2편에 나누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의비전스토리를 함께 읽으며,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도 함께 엮어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가 있는 장미, 이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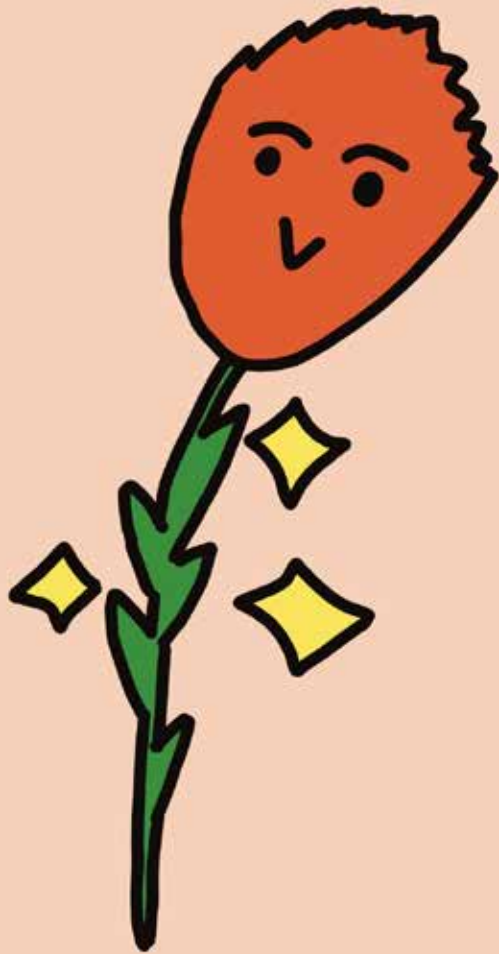
"왜 내 몸에 뾰족한 가시가 있지?"

나는 장미야.

태어나보니 가시가 툭툭 나있는 장미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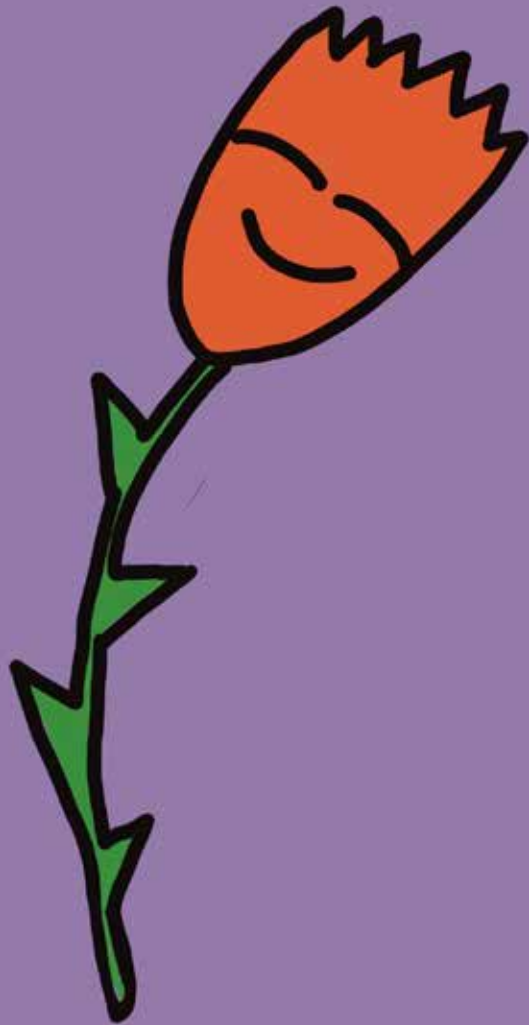
"튀튀, 이 장미는 왜 이리 힘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만질 때마다  
꽃이 우두둑하고 떨어져.  
그런 내 모습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나는 사람들의 나쁜 소리에  
내 꽃과 나를 지키기 위해  
꽃 주위에 가시를 돋게 만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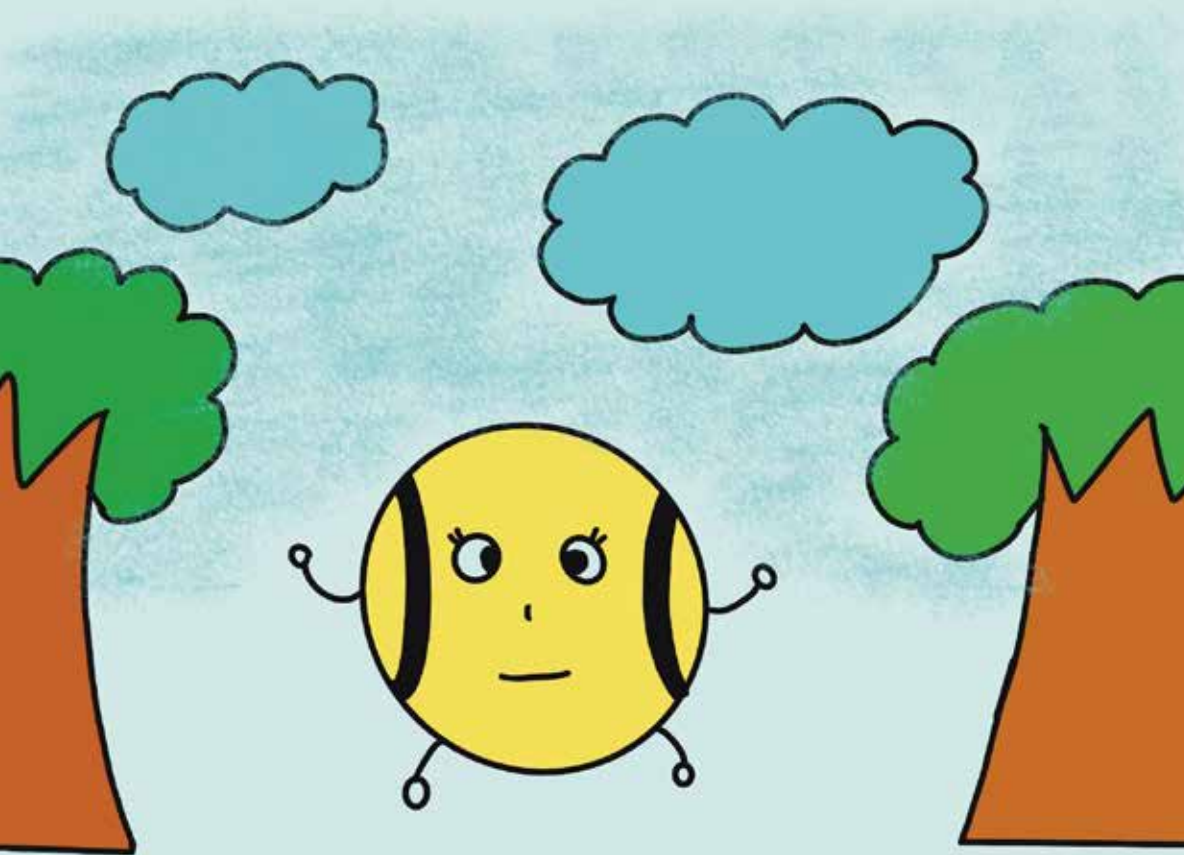
'반짝, 반짝 내 몸에 생기가 돌아왔어!'  
내 몸에 있는 가시 덕분에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



뽕족, 뽕족 가시가 있어서 정말 기뻐!"  
처음에는 가시가 쓸모 없는 줄 알았어.  
이제는 가시가 나를 보호해줘서 너무 좋아!  
이처럼 지금은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꼭 쓸모 있을 거야.



모두가 피하는 공, 우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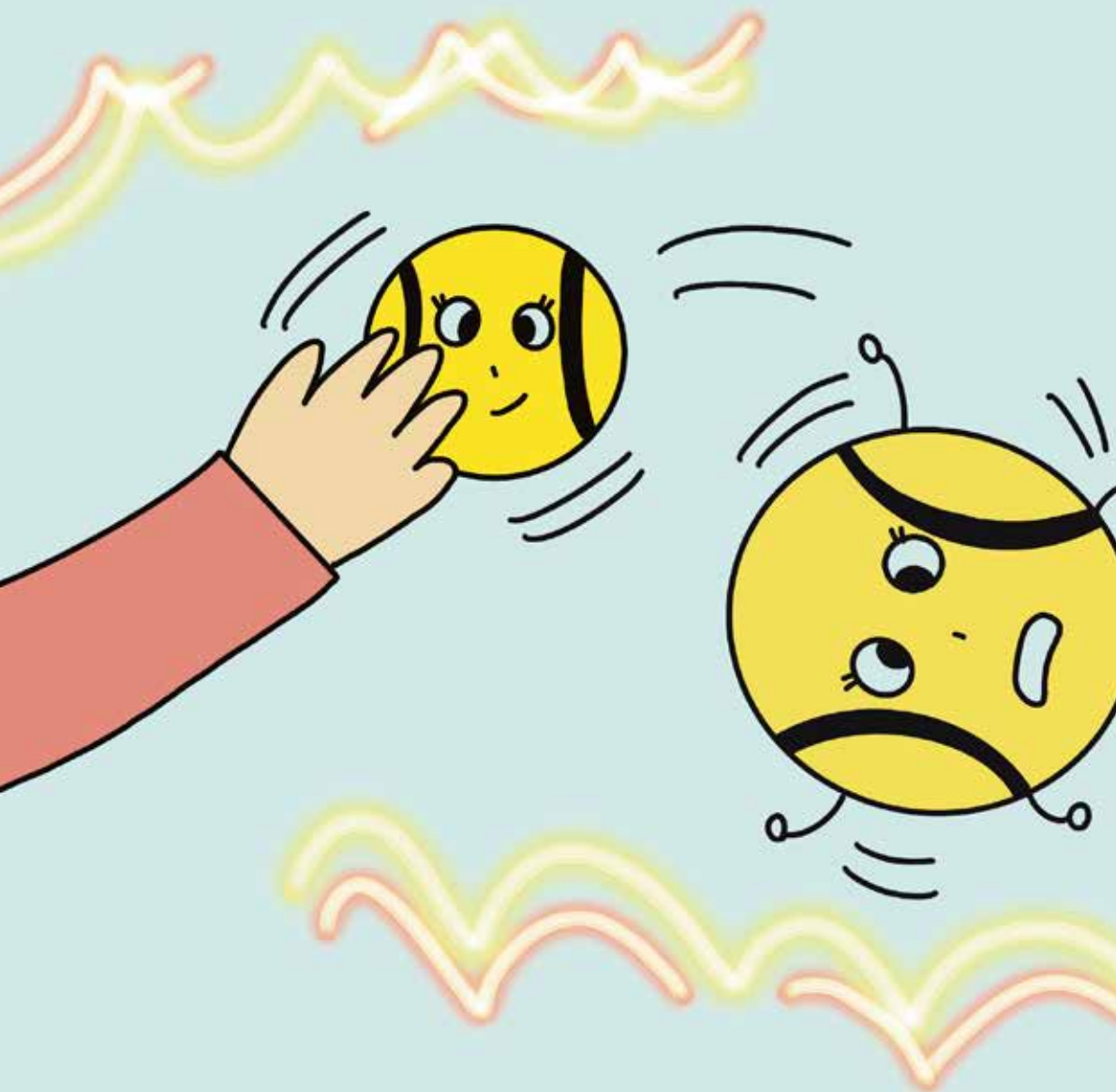


통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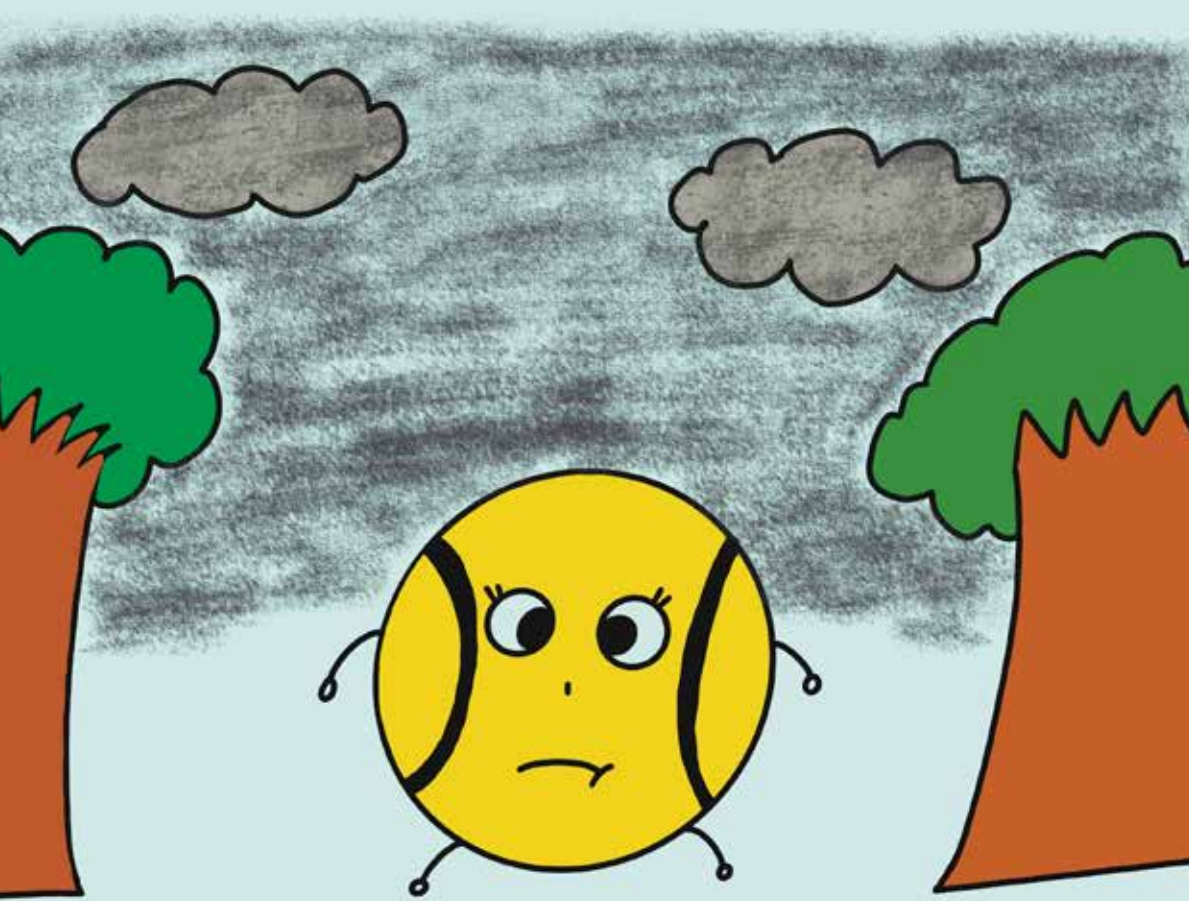
나는 피구공이다!

다들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나를 피한다.



"모두 나를 피하기만 해...  
그래서 난 슬퍼...  
왜 다들 나를 피하지?  
내가 무서운가...  
하긴 내가 조금 강하긴 하지."



"까악! 야 피해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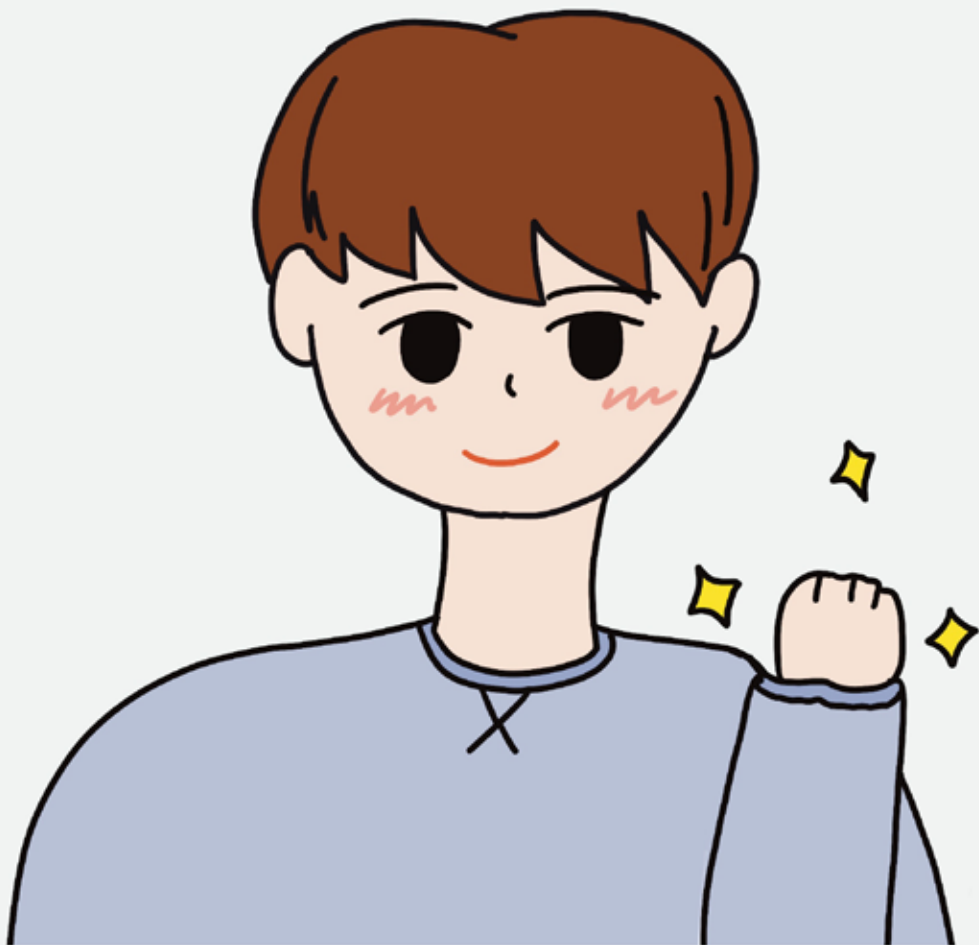
"조심해! 피했어야지!"

"야, 공 쿨러가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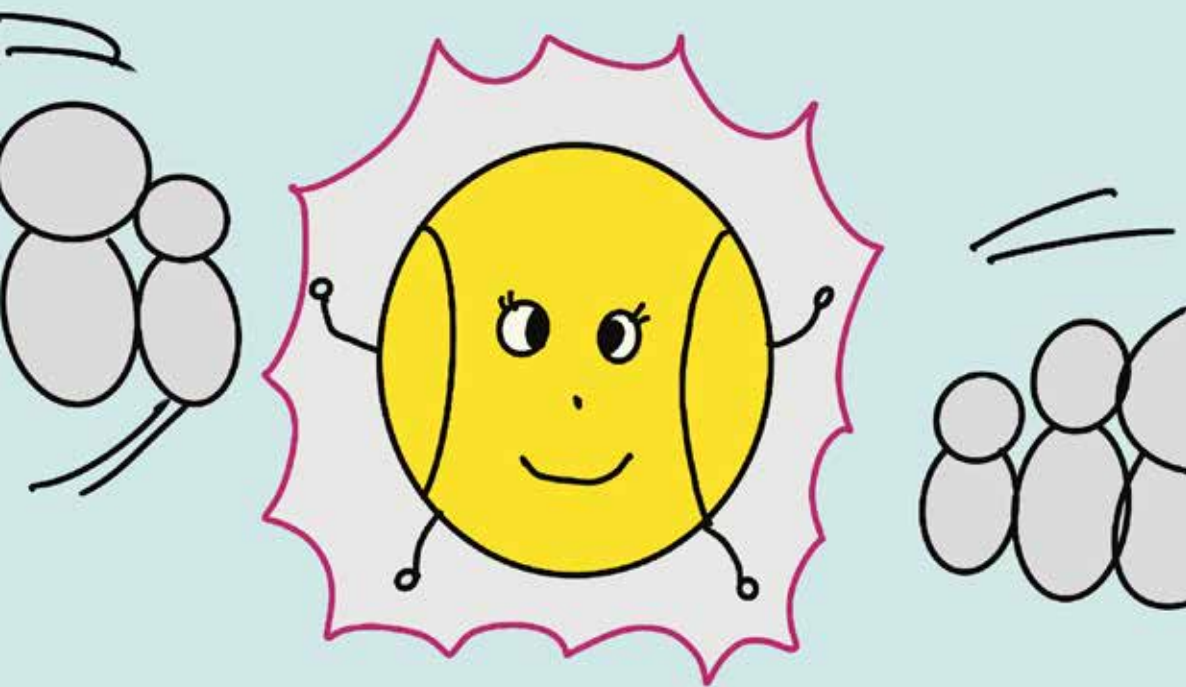
"저 공 잡지마!"

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



"왜 저 공을 다 피하긴 만 해?  
나는 안 피해. 잡을 거야."  
그때, 한 아이가 공을 잡는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드디어 누군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기대감이 부풀어오른다.  
"나를 잡아주는 아이가 있어"



드디어, 나도 누군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소중한 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행복하다, 나를 꼭 안아준 애들아 고마워!'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건 없지!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야.

## 돌맹이의 여행, 이미아

풀숲에 사는 돌맹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운동장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깜빡깜빡'





갑자기 학교 종이 쳤어요.

'땡동 땡동~ 땡동땡동'

친구들이 달려 나왔어요.

'후다다닥'

그러더니 돌멩이를 발로 차며 말했어요.

"쓸모없는 이 돌멩이는 왜 여기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돌멩이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때! 강아지가 달려왔어요.

'왈왈왈왈'

그러더니 돌멩이를 물고 어디론가 갔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돌멩이는 생각했어요.

강아지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 마을이었어요.





돌멩이를 물고 온 강아지는  
초가집에 사는 할머니가  
키우시는 강아지였어요.

강아지는 집에 구멍이 나서  
벌레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구멍을 막아주고 싶어서  
돌멩이를 주워 온 것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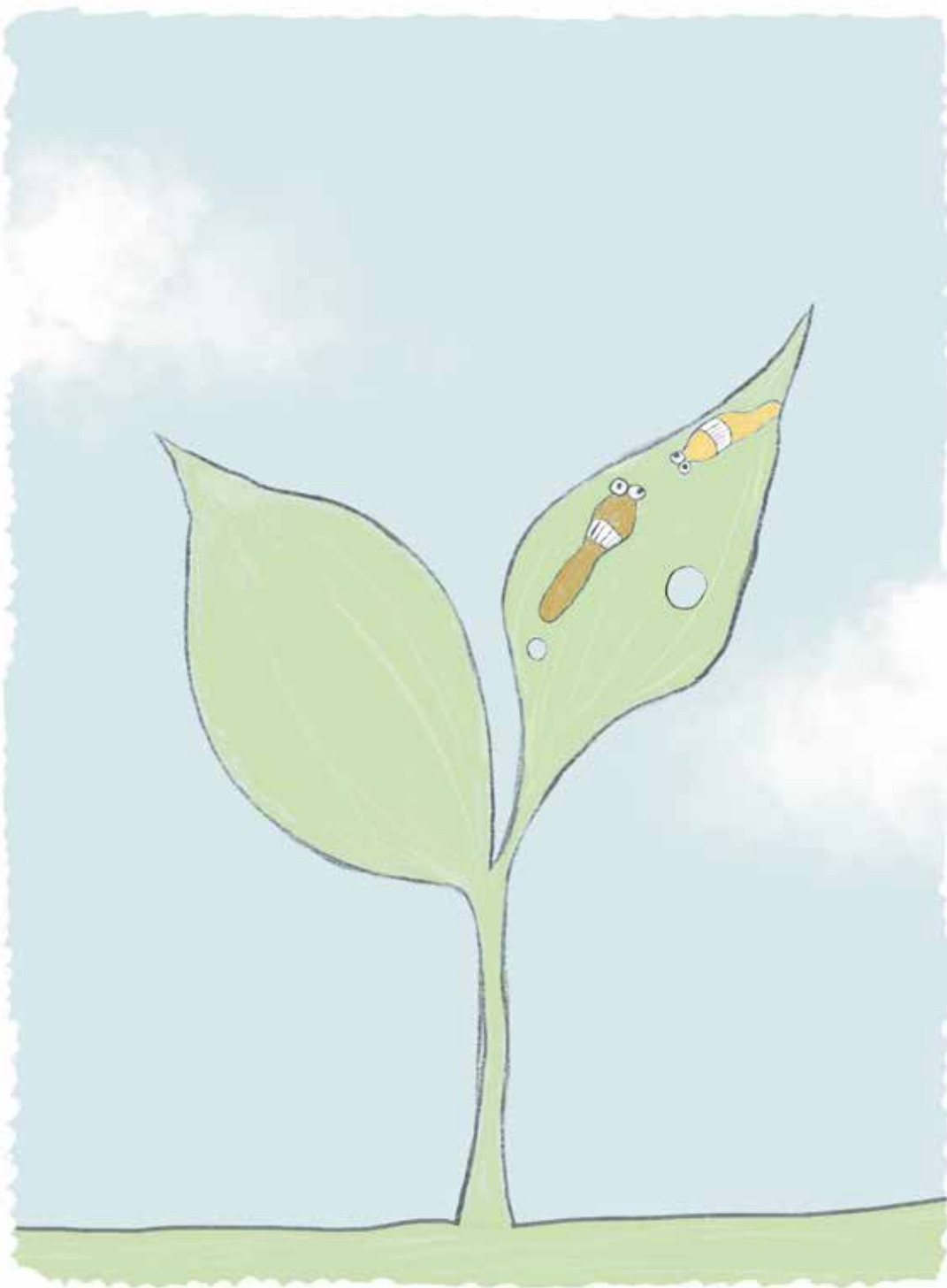
"이제 나도 쓸모있는 돌멩이겠지?"  
돌멩이는 자신이 할 일이 생긴 것 같아 기뻐했어요.



할머니가 구멍을 막은 돌멩이를 보았어요.  
그리곤 강아지의 뜻을 이해했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강아지를 예뻐해 줬어요.  
"아이 예쁘다."

돌멩이는 이제  
자신이 쓸모있는 돌멩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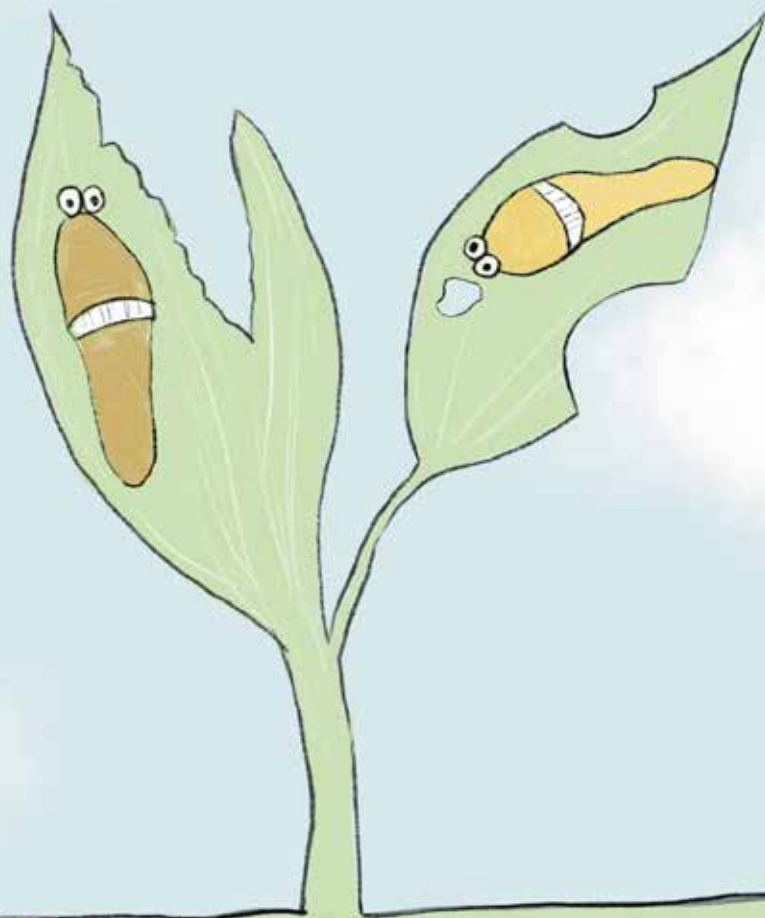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어요!



두 친구, 김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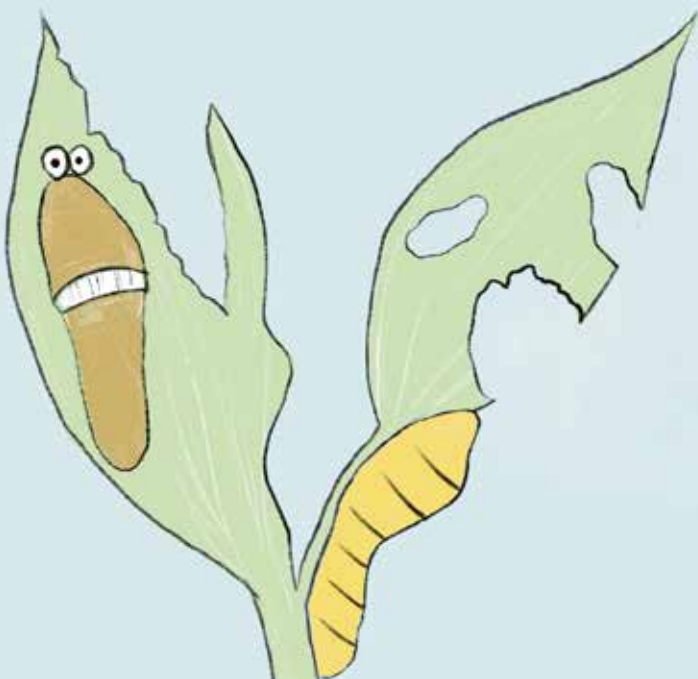
줄무늬 애벌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함께 한 나무에서  
잎사귀를 먹으려 자랐답니다.

열심히 잎을 갉아 먹으며  
두 친구는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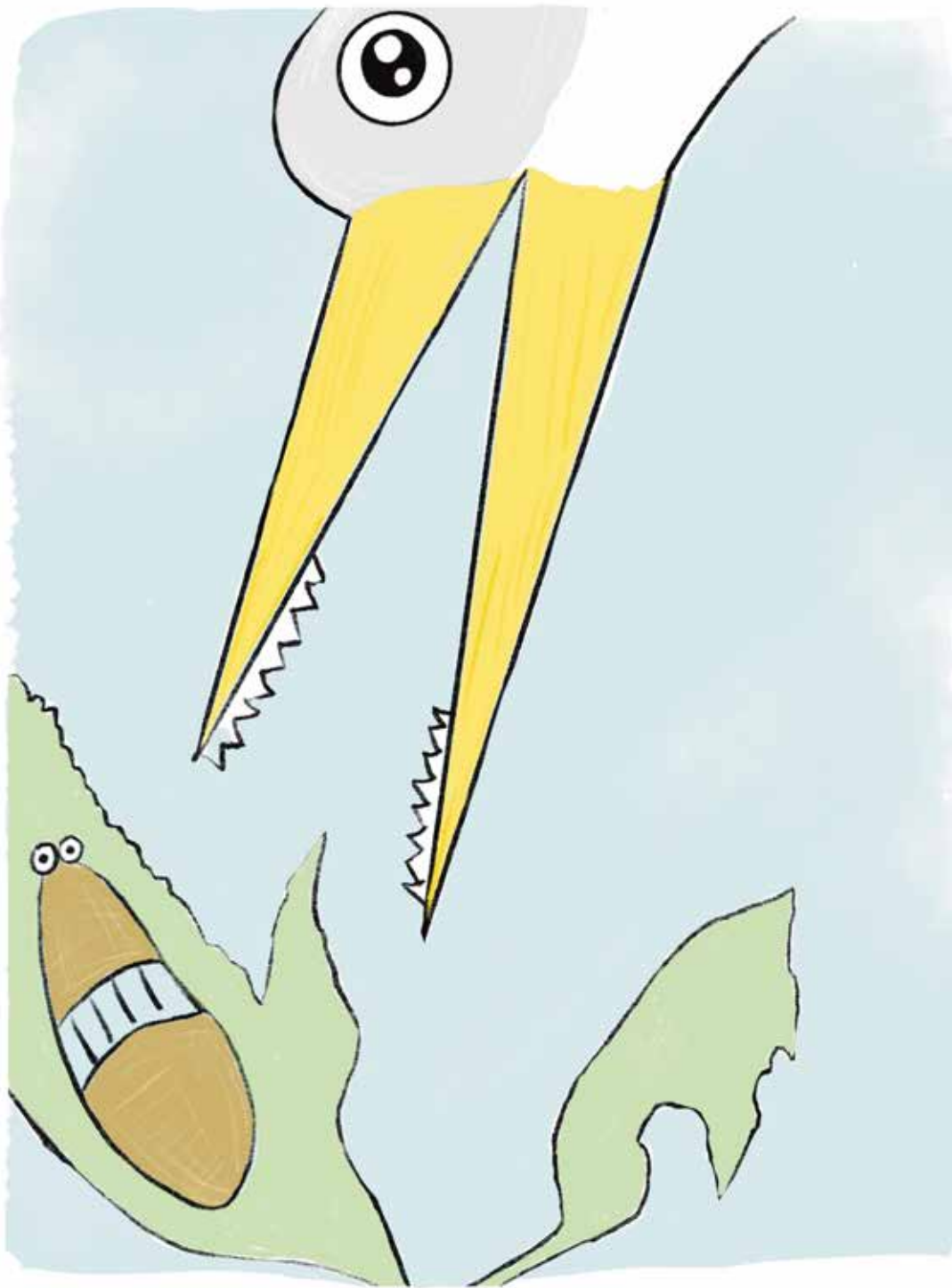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  
두 친구는 더는 나뭇잎이  
자신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넓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선택을 해야만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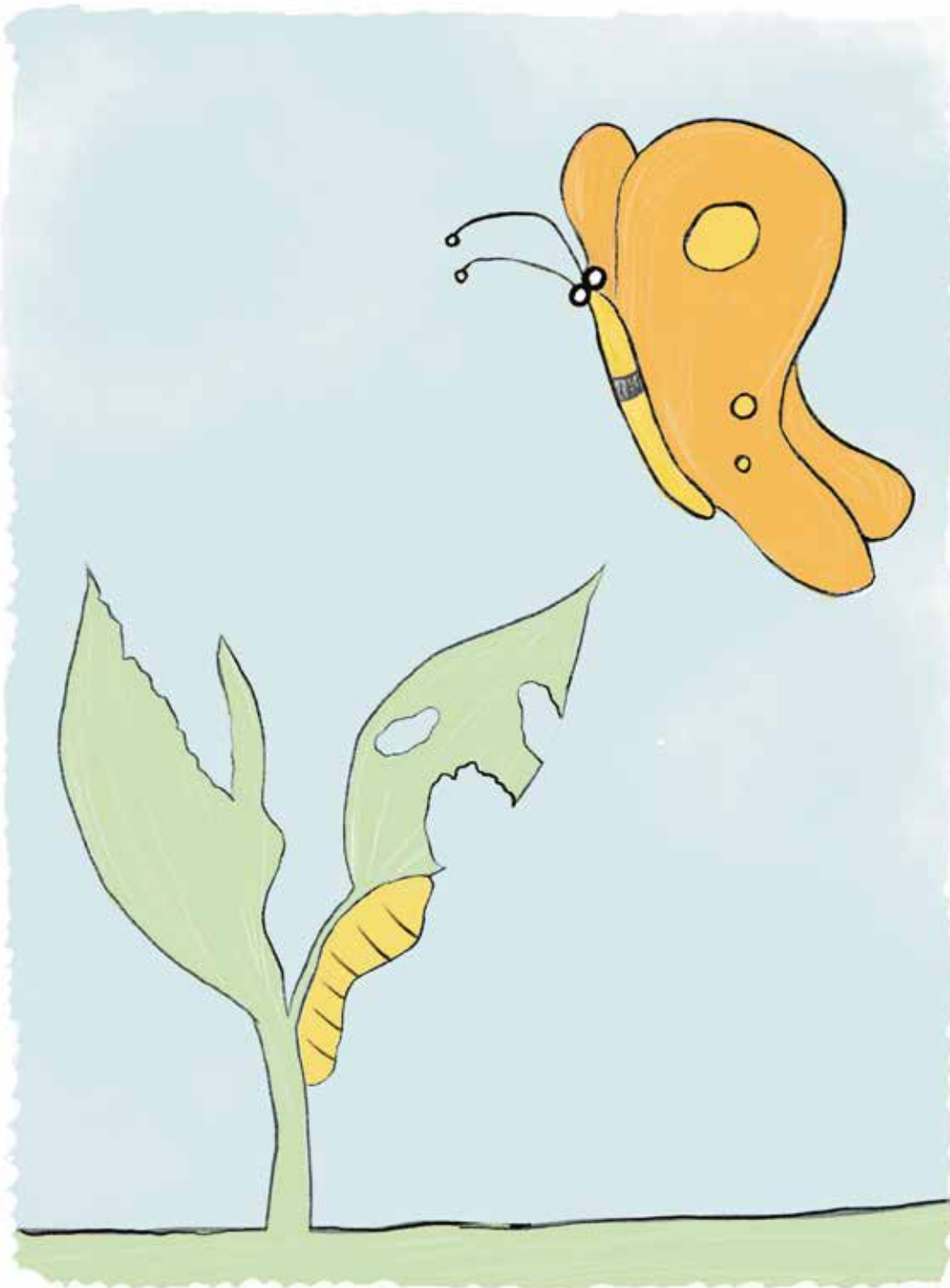


한 친구는 몸이 굳어져 가는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나비가 되는 꿈을 꾸며  
번데기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친구는  
변화하는 것이 싫어  
남은 나뭇잎을 계속 먹고  
점점 더 뚱뚱해졌지요



뚱뚱한 애벌레는  
새들의 눈에 점점 더 잘 띄게 되었고  
결국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들지만,  
변화를 선택한 줄무늬 애벌레는  
훨훨 나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변하는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그 끝에는 찬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성장판이 빠른 기린과 사과, 이태홍



어느 날, 기린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 기린은 다른 기린보다  
몇 배는 더 컸다.

기린은 사과를 무척 좋아했다.

"나는 사과가 제일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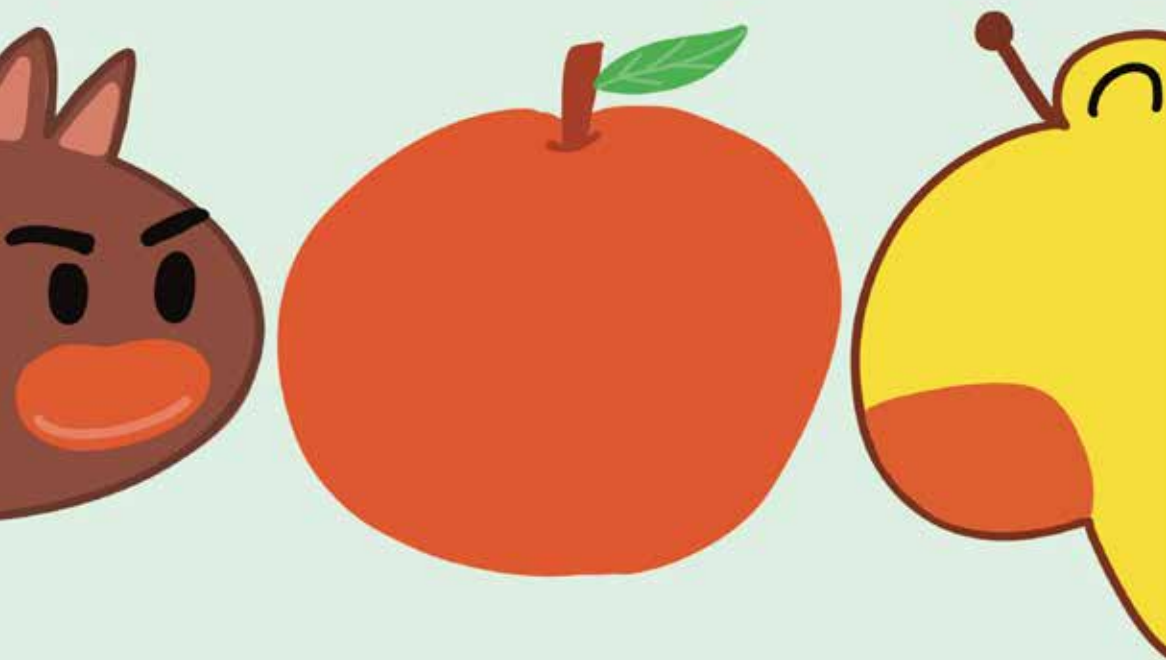
기린이 배가 고파서 사과를 따 먹었다.  
하지만 다른 사과들보다 맛있고  
탐스럽게 생긴 큰 사과는  
아껴 먹으려고 먹지 않았다.  
'아... 역시 사과는 너무 맛있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사과는  
나중에 아껴 먹어야지!'



어느 날 밤,  
기린이 자는 동안 하이에나가 몰래  
기린이 아끼던 사과를 먹으러 왔다.  
"크르렁... 사과는 너무 맛있어..."



하이에나가 낸 소리에  
기린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 순간, 하이에나와 기린은  
눈이 마주쳤다.  
"어랏?"  
"앗! 들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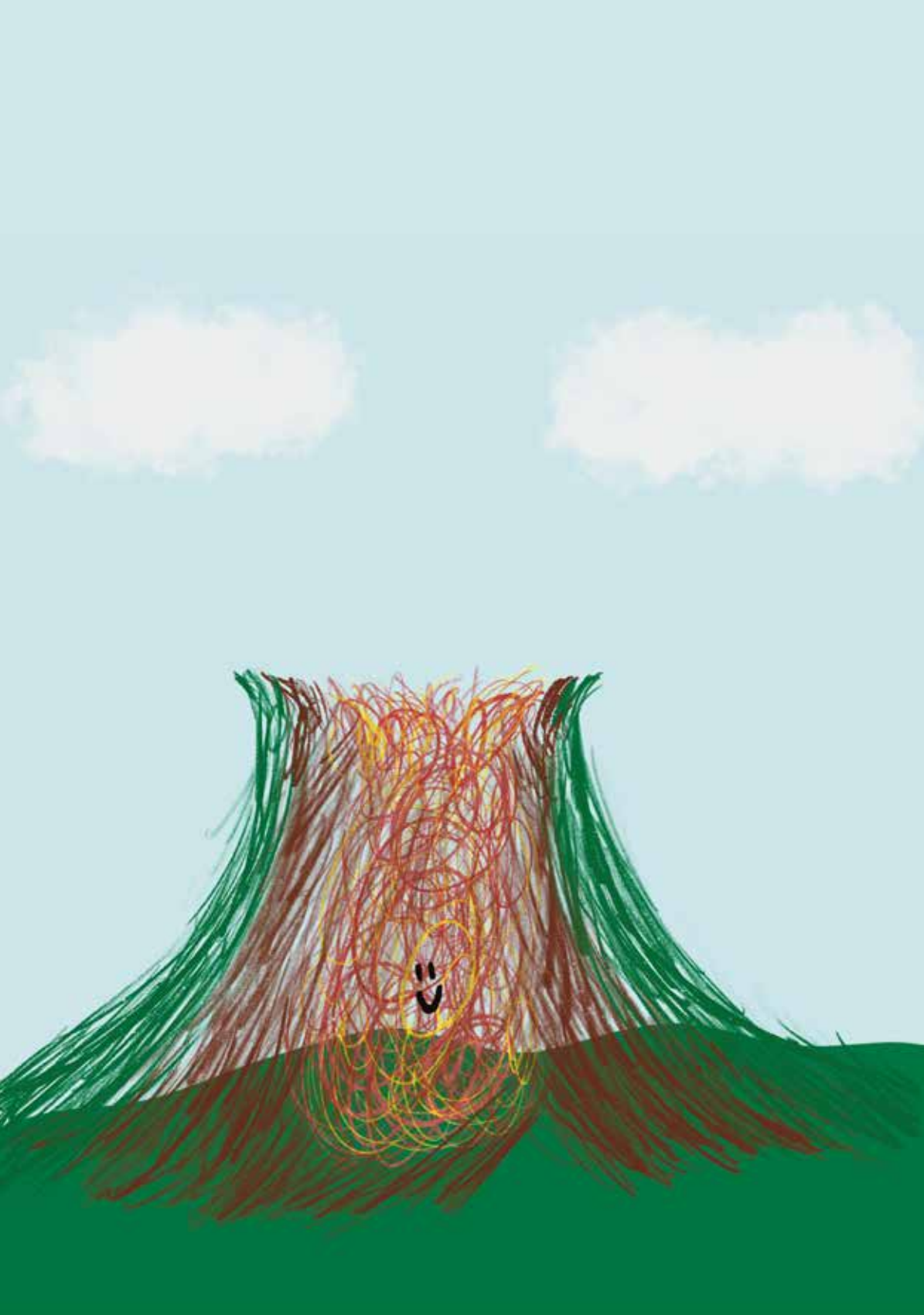


배가 고팠던 하이에나를 보고 기린은  
자신이 아끼던 사과를 함께 먹었다.  
"냠냠 찹찹, 함께 먹으니 더 맛있네."  
이처럼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 돌하르방의 자서전, 박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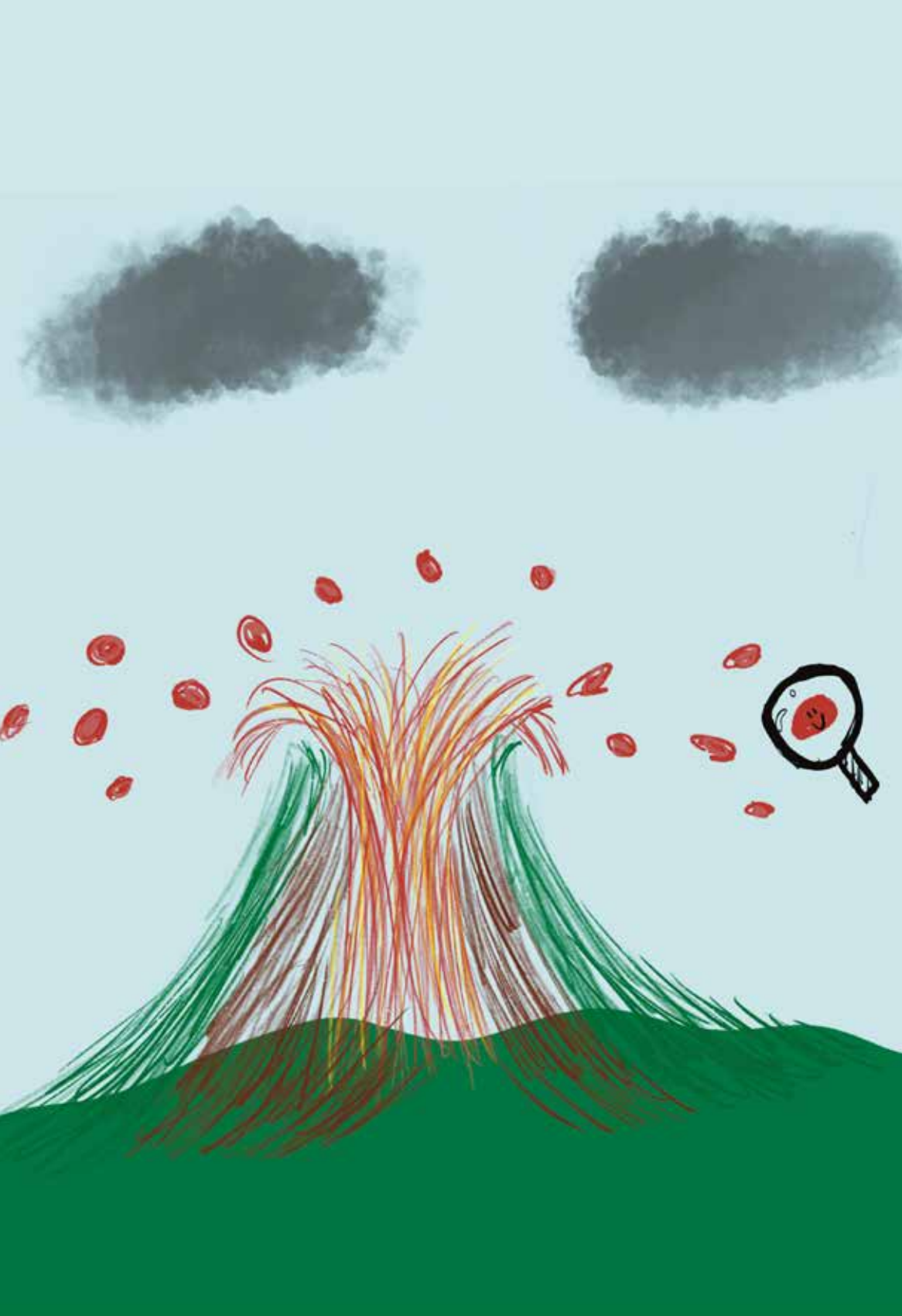
안녕?  
난 돌하르방이야.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니?  
지금부터 잘 들어봐!





나는 한라산 속에 사는 용암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한라산 폭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  
그러면서 돌이 되었지!



처음에 난 돌 친구들과 함께  
물속에 있었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웃쳐!)  
나와 친구들을 어디로 데려갔지 뭐야.

그곳에서 많은 친구와 함께 껍이고  
다듬어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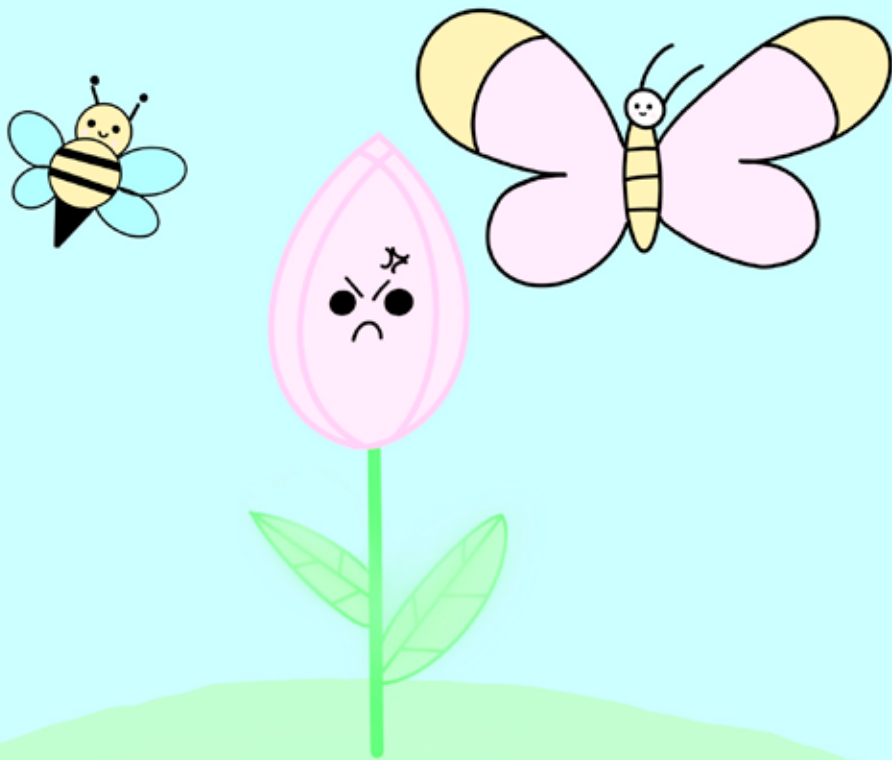


긴 시간이 흐르고 나는  
돌하르방의 '눈'이 되었어!  
아무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무엇이든 될 수 있어!

목심쟁이 꽃, 김가희



난 예민, 목심쟁이 꽃이야.  
그래서 내 꿀은 절대 안 줄 거야!



"여민아, 여민아  
우리한테 꿀 좀 나눠줄래?"

"싫어! 내 꿀은 절.대. 못 줘! "

"왜? 꿀은 못 주겠니?"

"어! 내 꿀은 내 거니깐 못 줘!"



벌과 나비는 목심쟁이 꽃을 지나  
옆에 있는 노란 꽃으로 날아갔어요.  
노란 꽃에게 꿀을 받고 좋은 향이 나는  
물방울을 노란 꽃에게 선물했어요.  
그러자 노란 꽃은 좋은 향을 뿜어냈어요.



욕심쟁이 꽃은 노란 꽃에게 물었어요.

"야! 넌 왜 좋은 향기가 나?"

노란 꽃이 대답했어요.

"나는 나비랑 벌에게 내 꿀을 나눠줬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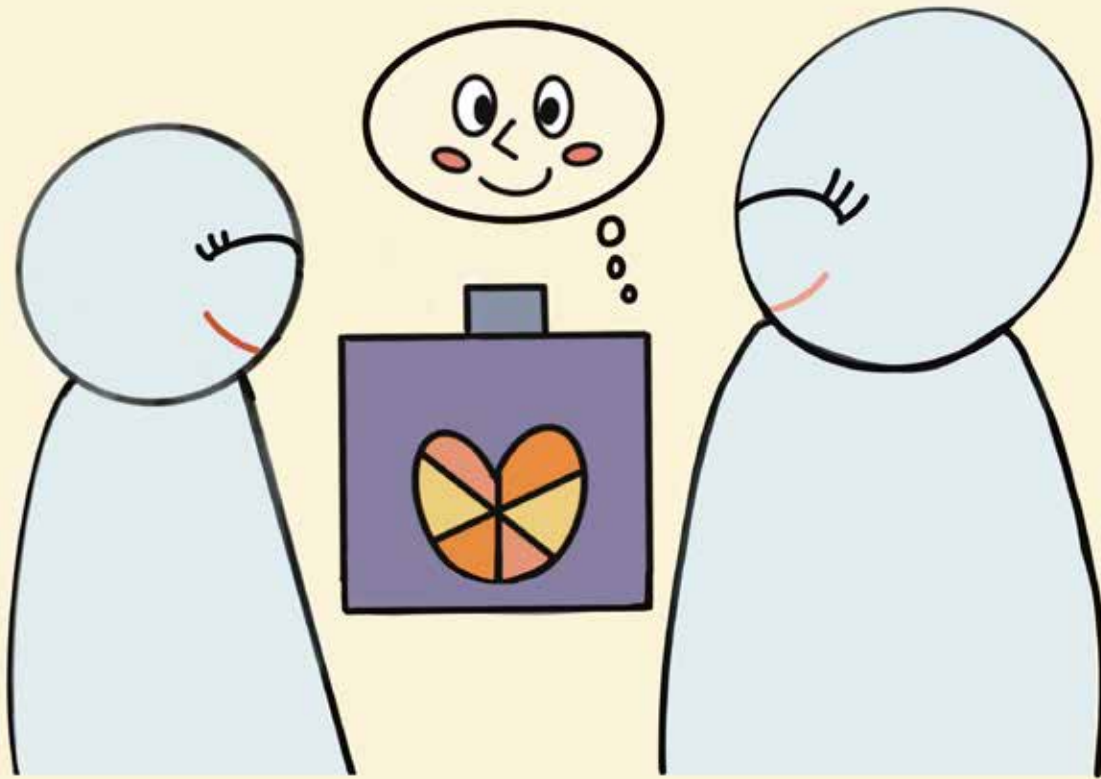
서로 나누는 건 좋은 일이야.

나누는 만큼 행복도 돌아온다구!"



목심쟁이 꽃은 말했어요.  
음~ 그럼 나도 내 꿀을 나눠줘 볼까?

## 향수의 추억, 장은지



"자 개업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가게로 들어왔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확 잡으며 말한다.  
"저기요! 이 향수는 어떤 향이에요?"

나는 내가 어떤 향인지 모르는데,  
나는 무슨 향일까? 심장이 마구마구 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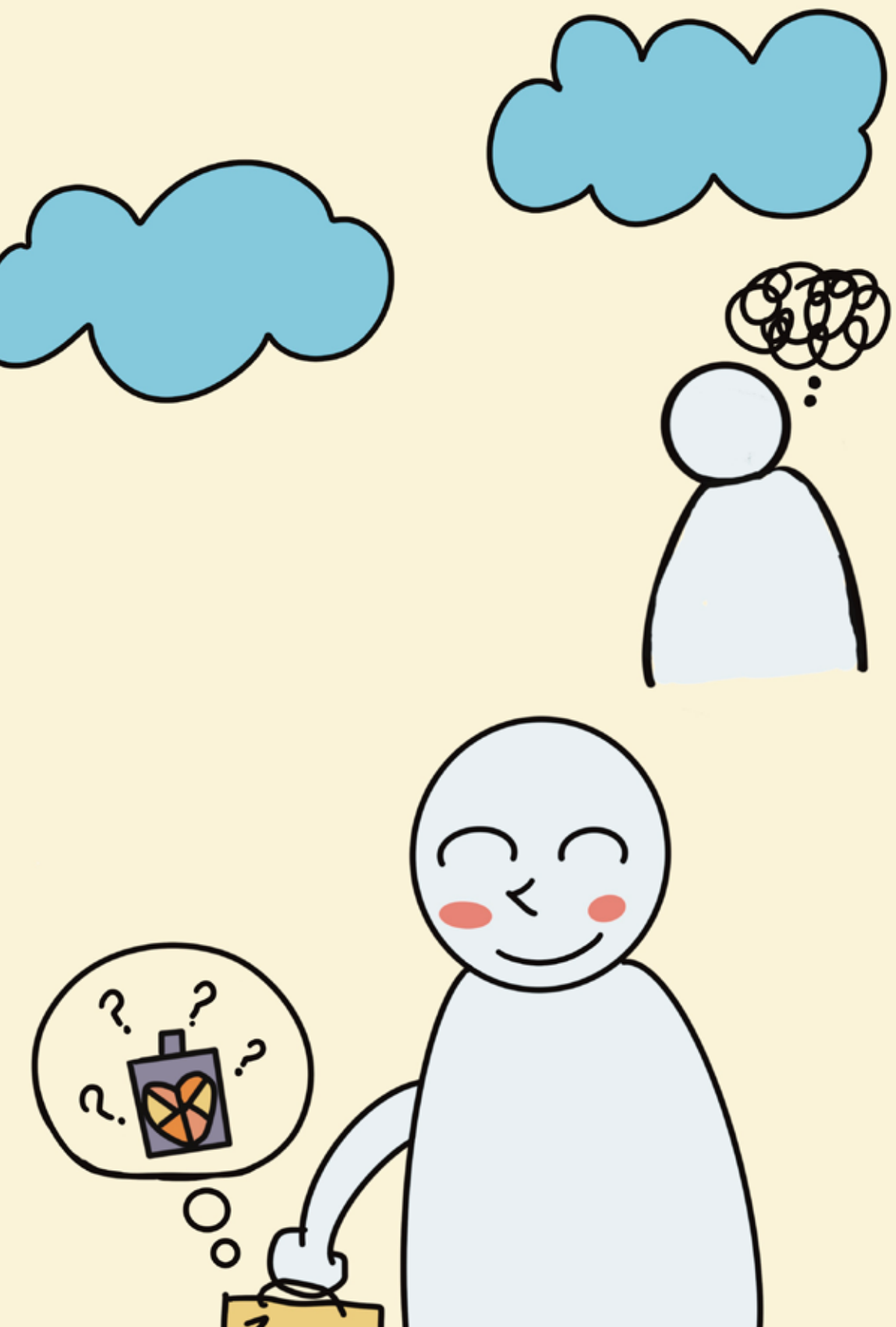
"이 향수는 파우더와 튤립꽃을 섞은 향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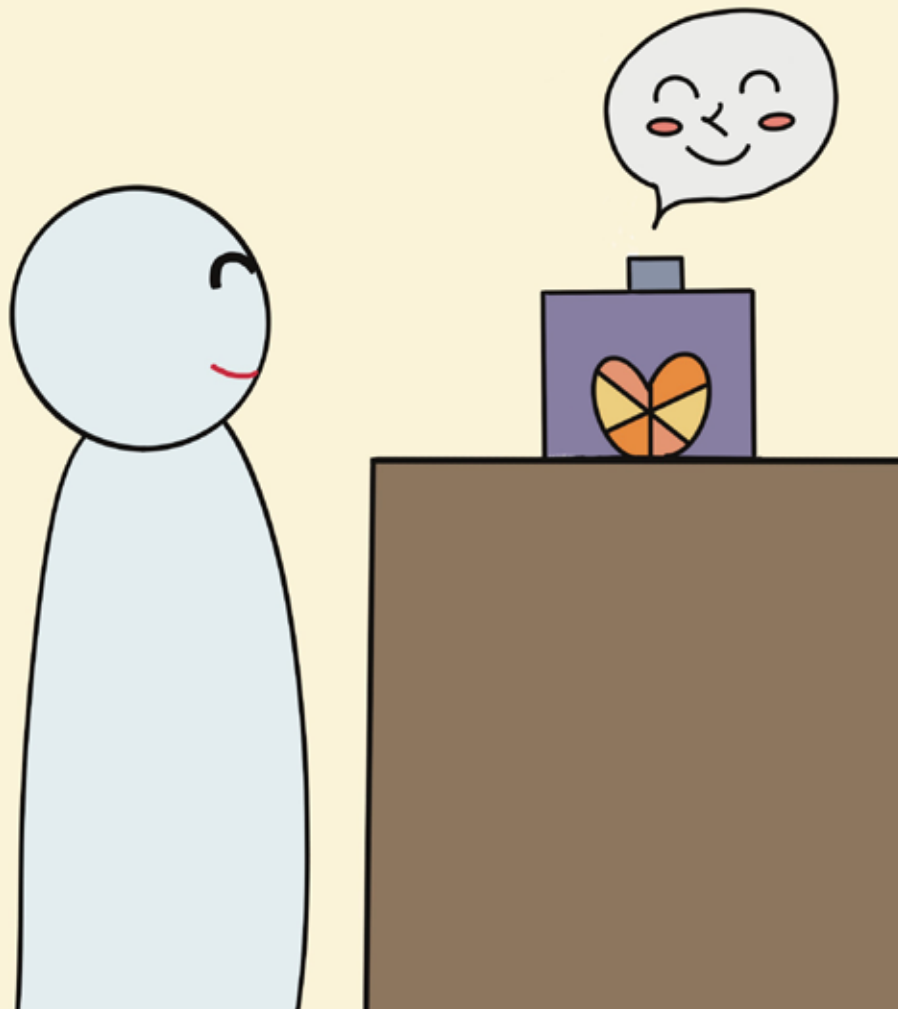
"향이 너무 좋네요! 이걸로 살게요."

나는 주인을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뻐다.  
내 이름 '첫 만남' 처럼  
우리는 좋은 사이로 남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내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내 주인은 자신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버렸고,  
나는 또 다른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새로 만나게 된 주인은 밝고 따뜻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주었다.



새 주인은 나에게 말했다.

"난 비록 네가 새것이 아니더라도 좋아!"

나는 늙았는데 그런 나를 사용해준다니!

그럼 나는 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도와줄게!



주인은 나를 자신의 몸에 칙! 칙! 뿌리고  
밖으로 나갔다.

좋은 사람을 만나 너무 행복하고 뿌듯해!  
앞으로도 좋은 추억 함께 만들자!

## 빈 공간, 김보미

"안녕? 나는 책장이야."

나와 도서관 사장님은  
10년이나 같이 지내왔지.

그런데 사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잘 못 나오고 계셔.



그래서 나는 사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나의 빈 공간에 책이 꽂힌 모습으로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나의 한 공간에는  
10년 동안 책이 꽂힌 적이 없거든.



"이 빈공간에 책이 들어가서  
채워지는 게 내 평생소원이야!"  
사장님은 늘 말씀하셨어.



'어! 저기 누가 왔어!'  
내 빈공간을 채워 줄 수 있을까?  
"아니었네.."

'딸랑' 종소리가 들려!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나 보!





탁! 책이 들어왔어!  
"드디어 내 빈공간이 채워졌어.  
정말 기뻐!"

기대하고 기다리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배가 돼!



나비스, 김태현



나비스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나비스!"

그 아이는 잘 생기고 재밌고 착해,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비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야기하다 다투기 시작했어요.

"네가 잘못했잖아"

"아냐, 네가 먼저 했어!"



나비스는 두 친구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렸어요.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두 친구는 나비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 화해했어요.

"미안해.."

"아냐, 내가 더 미안해."



나비스와 함께 있으면 주변이 행복해져요.  
왜 나비스가 인기가 많은지 알겠죠?

"친구랑 함께 하는 게 제일 즐거워!"

